

세계를 잇는 최고의 한상적인 클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다아너스티 컨트리 클럽

- 우천시 9홀 이후 출발요금정신세 실시
- 예약: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세계 야구 전쟁’ 시작됐다



4일 오후 도쿄돔에서 월드베이스클래식(WBC) 한국대표팀이 단체사진을 찍은 뒤 몸 풀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WBC 열전 시작

한국 4강 이상 목표

복잡해진 규정 변수

‘야구의 세계화’를 기치로 내건 월드베이스클래식(WBC)이 올해 2회째를 맞아 5일부터 일본과 북중미 대륙에서 열전을 시작한다.

초대 대회 우승국 일본과 4강 신화의 한국, 대만과 중국이 속한 A조가 5일부터 9일까지 대회 서막을 열고 C조(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베네수엘라)와 D조(도미니카공화국, 네덜란드, 파나마, 푸에르토리코)가 8일부터 각각 캐나다 토론토와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 바통을 이어받는다.

아마추어 최강 쿠바를 필두로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속한 B조는 가장 늦은 9일부터 멕시코시티에서 예선에 돌입한다.

◇더 치열해진 우승 경쟁=일본은 ‘타격 천재’ 스즈키 이치로 등 미국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해외파 5명을 불러 대회 2연패에 도전하고, 1회 대회에서 출전 끝에 4강에도 오르지 못한 ‘야구 중장’ 미국은 명예 회복을 바른다.

한국도 4강 이상의 성적을 노린다. 박찬호(필라델피아) 이승엽(요미우리) 박진만(삼성) 등 공수의 핵이 개인 사정으로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으나 작년 올림픽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16명의 우승멤버를 앞세워 4강 신화 재현에 나선다.

◇더 복잡한 대회 규정=지난 대회에서 투구수 제한, 희한한 본선 대전 등으로 여러 뒷말을 낳았던 WBC는 이번에는 더 복잡한 규정을 신설했다.

가장 큰 변수는 패자부활전. 한국은 1회 대회에서 일본과 세 차례나 만났으나 패자부활전 제도가 생기면서 최대 다섯 번 맞붙게 됐다. 예선에서 대결했던 팀끼리 본선에서 또 맞붙게 한 희한한 규정이 이에 한 몫 했다. 3년 전보다 5개씩 늘었으나 불행 운운을 어렵게 만드는 한계 투구수와 연장 13회부터 도입된 ‘승부차기’도 승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연합뉴스

두산 투수 임태훈 긴급 합류

제2회 월드베이스클래식(WBC) 개막을 이틀 앞두고 투수 임태훈(두산)이 긴급 수혈됐다. 김인식 대표팀 감독 등 코치진은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긴급회의를 갖고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평가전에서 부진했던 우완 황부성(히어로즈)을 엔트리에서 빼고 임태훈을 대신 명단에 올렸다고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밝혔다.

월드베이스클래식(WBC) 아시아예선전에 출전한 한국팀은 3일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최종 평가전을 마치고 6일 첫 상대인 대만과 맞붙는다. 예선전 출전 4개국 중 일본이 객관적 전력에서 가장 앞선다는 것이 중평인 가운데 패자부활전을 포함해 최소 2승을 거둬야 1,2위에 주어지는 본선행 티켓을 얻을 수 있는 만큼 한국은 첫 대만전 승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만 역시 메이저리그 등이 빠진 전력을 감안할 때 한국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해 양 팀은 남은 이들의 연습 기간 각각 장점은 살리고 상대의 약점은 철저히 파고드는 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리전창, 니푸더 ‘조심’=세이부 라이온스와 평가전에서 대만 투수진은 부진했지만 앞서 요미우리전에서는 마이너리거들을 중심으로 호투했다.

김인식 감독도 대만-요미우리전을 지켜본 뒤 “대만 투수들이 생각보다 세다. 마이너리그 출신 투수들의 볼이 괜찮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감독은 베이징올림픽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오른손 투수 리전창과 왼손 투수 니푸더를 주목했다. 이들이 사실상 한국전 주축 투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왼손 타자’를 막아라=대만 공격력에 대해 김 감독은 “특히 좌타 라인이 좋다”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전에서 홈런 1개와 2루타 2개 등 3타점의 공격력을 과시한 린이취엔(홍농)을 염두에 둔 것. 린이취엔은 세이부 전에서도 감각적 타격감과 빠른 발을 앞세워 내야안타 등 안타 3개를 때려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와 함께 요미우리전에서는 무안타에 그쳤지만 세이부전에서는 3안타를 뽑아낸 보스턴 레드삭스 산하 마이너리거인 린지쉬엔도 한국 투수들이 경계해야 할 타자다.

◇불안한 대만수비, ‘발아구’가 해법=두 차례 평가전에서 한국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찬사를 불러왔던 ‘발아구’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벤치의 도루 사인 없이도 풀 수 있는 이종욱, 이응규, 정근우, 고영민 등 빠른 선수들이 제대로 출루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출루에만 성공한다면 대만의 약한 수비력을 감안할 때 의외로 경기가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2차례 평가전에서 수비실책 3개를 기록했다. 한국은 1개였다. /연합뉴스

이날 추신수는 WBC 아시아라운드 주치의 토마스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도쿄돔에서 30차례 공을 때렸다. 추신수는 수비에도 나섰다. /연합뉴스



한국, 내일 대만전에 사활 원손 타자 막고 발아구 펼쳐야

클리블랜드 “추신수 보내달라” 대만전 출전 불투명

월드베이스클래식(WBC) 한국 대표팀 출전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추신수(클리블랜드·사진)의 부상 여파가 대회를 앞두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때문에 추신수 본인은 물론 선수단 전체도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자칫 예선전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4일 대표팀 관계자에 따르면 마크 사피로 클리블랜드 단장은 이날 오전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추신수의 귀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피로 단장은 “추신수를 미국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팀 주치의가 추신수의 상태를 살펴보고”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추신수가 2일 세이부 라이온스와 평가전 직전 타격연습을 하던 도중 지난해 수술했던 팔꿈치 뒷부분에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김 감독은 “여태까지 추신수의 부상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온 만큼 (이런 상황) 앞으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클리블랜드 소속 선수인 만큼 그 팀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신수는 WBC 아시아라운드 주치의 토마스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도쿄돔에서 30차례 공을 때렸다. 추신수는 수비에도 나섰다. /연합뉴스

KIA, WBC 응원 이벤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6일까지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를 통해 ‘WBC 응원하고 사인받자’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벤트는 WBC에 출전하는 KIA의 윤석민과 이용규의 성적을 맞추는 것으로, 대만전을 시작

으로 아시아 예선 3경기에서 윤석민의 탈삼진 개수와 이용규의 안타 개수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 유·무료 회원 모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자 중 선착순으로 접수한 10명씩을 선정해 각각 윤석민과 이용규의 사인이 된 WBC 공인구를 증정한다. /김여울기자 wool@

브리타시여골프 한국선수 우대

KLPGA랭킹 1~10위 1차 예선 면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상위 랭커들은 올해부터 브리티시여자오픈 1차 예선을 거치지 않고 최종 예선에 직행한다.

4일 KLPGA에 따르면 브리티시여자오픈 대회조직위원회는 올해 참가 신청 마감일인 6월30일 기준으로 KLPGA투어 상금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1차 예선을 면제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KLPGA투어 상금랭킹 10위안에 든 선수들은 7월13일 버크셔셔 골프장에서 열리는 1차 예선을 면제받고 27일 페어헤이븐 골프장에서 열리는 최종예선전에 바로 참가할 수 있다.

1차와 최종 예선 모두 면제를 받는 조항은 작년과 변함없이 전년도 KLPGA투어 상금왕에게만 해당한다. 신지애(21·미래에셋)는 지난해 KLPGA 상금왕이자 디펜딩챔피언의 자격으로 이미 출전권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LPGA(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HS-BC 여자 챔피언 프로암 라운드에서 이미나와 박세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정상 정복 시동

6~8일 오스트리아 세계선수권

한국 대표팀 10명 훈련 구슬땀

남녀 쇼트트랙 ‘태극전사’들이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6~8일·오스트리아 빈)에 앞서 세계 최강 전력의 면모를 뽐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남녀 대표팀 10명은 오는 6일(한국시간)부터 오스트리아 빈의 페리 두시가 활렐슈타디온에서 치러지는 세계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해 지난 1일 일찌감치 현지로 날아갔다.

이번 시즌 한국은 남녀 대표팀의 대표적인 에이스 안현수(성남시청)와 진선유(단국대)의 부재 속에 힘겹게 월드컵 시리즈를 치러왔다.

남자 대표팀은 성시백(연세대)과 이호석(고양시청), 이정수(단국대)가 안현수의 공백을 잘 메우면서 세계 최강의 입지를 지켰지만 여자 대표팀은 중국세에 밀려 정은주(한국체대)와 김민정(전북도청)의 분전에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에 따라 대표팀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와 팀선수권대회를 명예회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뿐이다.

남자 대표팀은 지난해 국내에서 치러졌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전통적으로 약한 500m를 제외한 나머지 4종목(1,000m, 1,500m, 3,000m, 계주)을 휩쓸었다.

이번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성시백의 활약이 눈이 부셨다. 성시백은 500m를 포함해 전 종목에 걸쳐 좋은 활약을 펼치며 예전 안현수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서 금메달 사냥의 선봉으로 나섰고, 이호석과 이정수가 그 뒤를 받쳐줬다. 막내 광운기(연세대)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선배들의 백업 역할을 제대로 해줬다.

이를 토대로 남자 대표팀은 지난해 대회에서 아쉽게 못 이었던 전 종목 석권을 노리고 있다.

반면 여자 대표팀은 정은주와 김민정의 활약과 더불어 지난해 처음 세계선수권대회를 경험했던 ‘차세대 주자’ 양신영(한국체대)과 신새라(광문고)의 실력 발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고, 진흥고에 5-0 완봉승

광주 춘계고교야구대회 1차전

동성고가 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2008 춘계고교야구대회 1차전 진흥고와의 경기에서 5-0으로 완봉승을 거두었다.

동성고는 이날 8이닝 동안 상대 타선을 3안타 무실점으로 묶은 선발 유영국의 호투와 4타수 3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한 유익수 김민재의 활약을 앞세워 진흥고에 5-0으로 승리했다.

동성중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 2차 예선 중학야구대회에서 진흥중을 상대로 5회 8-0 폭승을 거두었다. 총장중과 무등중은 4-4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김여울기자 wool@